

코로나 답답함에...“노느니 자격증 따자” 학원 붐적

대중교통 기피에 운전면허 따고 안경 김 서림에 시력교정술 받고 정보화자격증 학원·안과병원 등 몰려...치과는 환자 수 줄어 올상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한 일상에 변화를 주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보다가 관심이 가는 자격증 수업을 켜거나 자격증 취득에 나서려는 가 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상화된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지는 점을 활용, 시력 교정술을 받거나 때를 가리지 않고 성형수술을 상담하는 시민들도 부쩍 늘었다. 코로나로 뻘해진 일상을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재미를 찾겠다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대중교통 기피, 직접 운전해오=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반영되면서 운전면허 취득자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상화된 드라이브스루와 자가용 여행으로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광주지역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2019년 4만 2039건에서 지난해 4만 2110건으로 늘었다. 전남도 2019년 5만 7099건에서 2020년 5만 7835건으로 증가했다.

비대면 방식의 운전 학원도 성업중이다. 북구 한 실내운전면허 학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시민들로 매일 북적이다.

반면, 대중교통 감소세는 뚜렷하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광주 시내버스 이용객은 7834만 9000명으로 2018년 같은 기간 이용객 1억 1615만 7000명에 견줘 32.5% 감소했다. 지하철 이용객도 지난 2019년 1931만 9090명에서 지난해에는 29.7% 감소한 1358만 2875명에 그쳤다.

실내운전면허 관계자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40~50대 주부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찾고 있

다”며 “코로나에도 기대 이상으로 학원생이 많다”고 말했다.

◇집에서 보는 유튜브로 영화에 자격증까지=‘집콕족(族)’이 늘고 기간도 장기화되면서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려는 시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예전에는 유튜브로 못 봤던 드라마나 영화를 즐겼다면 이제는 공인중개사나 손해사정인 시험 과목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을 빼놓지 않고 보면서 자격증 취득까지 노린다는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가 파악한 지난해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 응시자는 7만 1409명으로, 2019년(6만 4747명)에 견줘 10% 가까이 늘었다. 공무원 공개 시험에서 반영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지난해 폐지됐는데도 응시자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에 가산점 폐지 등에도 응시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도 이날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원서접수 마비 사태가 발생한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심이 높았다.

◇마스크가 감춰주고 마스크 쓸때 불편해서=일상화된 마스크로 인한 변화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게 시력교정술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점으로, 겨울에 몰리던 예년과 달리, 사계절 상담을 받는 손님들이 늘어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학원인구 감소에도, 시력교정술을 받는 젊은층이 늘어났고 특히 안경 착용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호흡할 때 렌즈에 김서림 현상이 생기는 불편을 참다못해 시력교정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

A안과 관계자는 “안경을 쓴 시민들이 김서림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시력교정술을 상담받으려고 병원을 찾고 있다”며 “지난해 겨울보다 시술도 20% 늘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꼭 금연 성공하세요” 11일 광주 북구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 상담사들이 금연클리닉 동의를서를 제출한 금연대상자들에게 보낼 금연보조제와 행동강화물품 등을 포장하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연클리닉 운영을 대면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 치과업계에서는 직접 입을 벌리고 진료를 해야 하는 탓에 반드시 필요한 진료가 아니라면 교정도 미루면서 손님이 줄었다는 반응이다.

대형 치과병원 원장은 “마스크 착용으로 치과 교정 환자가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교정치료 환자의 경우 눈에 띄게 줄었다”며 “모든 진료가 입을 벌리고 진행되는 점을 걱정해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룬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여수산단·평동산단서 잇단 사망...노동계, 중대재해법 보완 촉구

광주·전남지역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당장 시행이 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의 경우 3년 뒤부터 법 적용이 이뤄지는 만큼 영세한 소규모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리·감독에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낮 12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단지 내 포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여직원 A(51)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숨졌다.

해당 여직원은 사고 당시 동료직원과 함께 2인 1조로 파쇄기에 폐플라스틱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광산구 하남산단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슷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비슷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기업의 부실한 안전의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찰은 A씨가 6개월 전 입사해 점심 시간대 해당 작업에 참여하는 점에 주목, 공장의 안전수칙이

행여부와 관리·감독 여부 등을 따져 업체측의 업무상 과실 유무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기업의 협력업체 소속 B(33)씨가 석탄 운송 설비인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이날 2인 1조로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석탄 잔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이라도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원청 회사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게 골자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점포 규모가 1000㎡ 미만인 자영업자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노동자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등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과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고 민주노총 광주지역 본부는 12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잇따르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노동정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를 연다. /정병호 기자 jushb@

수사 종결권 줬더니 ‘제식구 감싸기’

금은방 절도 경찰 불법도박 파악하고도 혐의 추가 않고 수사 마무리

현직 경찰관의 금은방 절도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경찰관의 불법 도박 혐의를 파악하고도 관련 혐의를 추가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송지했다.

경찰은 수사 기간을 감안, 확인된 혐의만 우선 적용해 검찰로 넘긴 뒤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피의사실 공표’라는 식으로 불법 도박 혐의를 숨겼다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수사 종결권을 갖게되자 자신들 입의대로 수사를 마무리하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남부경찰은 11일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

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광주서부경찰 소속 A(47)경위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경위는 지난 6일 새벽 광주시 남구 주월동 모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조사결과, ‘수억원 대 도박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A경위의 도박자금 거래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구속기간(10일)이 남았음에도 특수절도와 자동차관리법 혐의만 적용해 A경위를 서둘러 검찰에 넘겼다. 또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확

인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수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하고도 관련 혐의를 뺐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현직 경찰관의 금은방 절도가 불법 도박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더욱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 ‘허위 사실 공표’를 앞세워 동료 경찰의 범죄 혐의를 덮어 주면서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 권한을 부여받은 이후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의 인터넷 도박 정황을 확인, 지난 8일부터 광주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이버 도박의 경우 혐의 입증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혐의를 제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A 경위가 훔쳐 집 화단에 숨겨놓은 귀금속을 모두 회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덕산 스피러스		골드(28)방2	3,210	1,9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추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전화 (053)951-3080

동양회원권거래소 팩스 (053)944-3080